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며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적인 축복들이 넘쳤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복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계시의 축복

계시하면 신비로운 느낌이 들고 비밀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계시란 감추인 것이 밝히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고 알려 줍니다.(8-9절 상) 우리에게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 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만유의 주권자가 되심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짐을 믿게 되는 것이 다 계시의 축복입니다.

둘째,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의 축복

그렇다면 왜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될까요?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 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었다고 합니다.

헬라이어 신약성경에 보면 같은 시간인데도 사람의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셋째, 통일되는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삶의 조화를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10절) 통일은 만물의 통합과 조화와 균형과 질서와 공존과 회복과 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개별적인 조각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조화되고 통합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자신이 치유되고 온전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롭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낮은 자존감이 치유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자신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2/18(월)	12/19(화)	12/20(수)	12/21(목)	12/22(금)	12/23(토)	12/24(주일)
몬1,히1-5	히6-9	히10-12	히13,약1-3	약4-5,벰전1-2	벰전3-5,벰후2	벰후3,요일1-4

Q T

이번 주 QT 말씀

12/18(월)	12/19(화)	12/20(수)	12/21(목)	12/22(금)	12/23(토)	12/24(주일)
잠 26:13-28	잠 27:1-12	잠 27:13-27	잠 28:1-14	잠 28:15-28	요일4:7-15	눅2:1-14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복음을 깨닫고, 믿어진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고, 있었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3.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회복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나누어 주세요.